

IFDE

원격고등평생교육 국내정책동향

정책동향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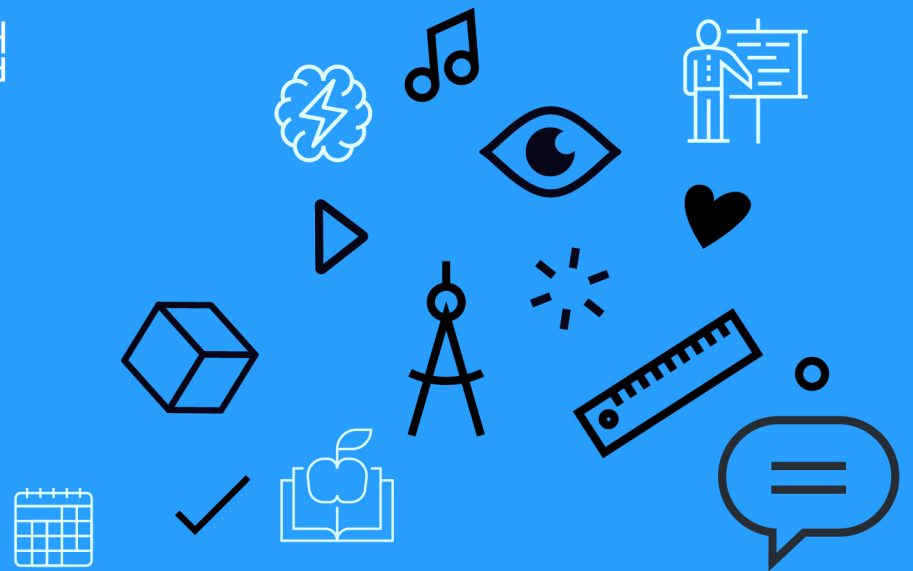
2025년 국립대학육성사업
기본계획

정책동향2

서울형 지역혁신중심
대학지원체계(RISE) 사업

정책과제

방송대 학생 수 변화
추이에 따른 학과별
유형 분석 결과



2025
02

2025년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

★ 교육부는 대학 대상의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서 '2025년 대학·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'을 발표했습니다(25.3.21.). 동 사업들은 미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·실행하고 자체 역량을 강화하여 혁신할 수 있도록 한 일반재정지원사업입니다. 이 가운데 우리 대학과 관련 있는 **2025년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봄으로써, 우리 대학이 국립대학육성사업 참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파악하고자 합니다.**

1 사업 추진 개요

- 교육부는 '24년 '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(2025-2029)'을 수립하고,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구조를 '일반재정지원사업, 라이즈(RISE)사업, 특수목적사업'의 3가지로 크게 통합·분류
 - 라이즈(RISE)는 지자체·산업체·대학·연구소 생태계 구축에 중점, 일반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혁신을 기반으로 교육·연구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개편



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체계도



○ 2025년 대학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서 **국립대학육성사업 개요**

	대학혁신지원사업	국립대학 육성사업
대상	사립대 118개교	국립대 37개교
내용	대학교육의 자율 혁신을 통한 창의·융합형 인재 양성	국립대학의 자율 혁신 지원 및 사회적 책무성 강화
총 사업비	7,955억 원	4,243억원
사업비 배분(정량:정성)	50 : 50	40 : 60

< '25년 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비 현황 >

구분	'24년	'25년	증감
총 사업비	5,722억 원	4,243억 원	△1,479.0억원
교당 평균 지원단가	154.3억 원	114.3억 원	△40.0억원

2 사업 추진방향 및 내용

1 기본 방향

- **(대학 특성에 맞는 자율적 혁신 지원 강화)** 총액교부 방식의 재정지원으로 집행 자율성을 확대하고 대학이 자체적으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성과 창출
- **(혁신성과와 연계한 차등 지원으로 성과관리 강화)** 자체성과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재학생 충원율 지표 추가 등 성과에 기반한 재정 지원 확대
 - 성과평가 인센티브는 대학 유형을 고려하여 배분 후 성과평가 등급에 따라 배분
 - ※ [거점대 + 국가중심대(특수목적대 제외)] : [특수목적대 + 교원양성대] = 약 8 : 2로 배분
- **(융·복합 인재 양성 지원)**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체제 개편 및 학사구조 유연화를 통해 대학의 자율적 교육과정 혁신 유도, 다양한 융합전공 도입으로 다변화된 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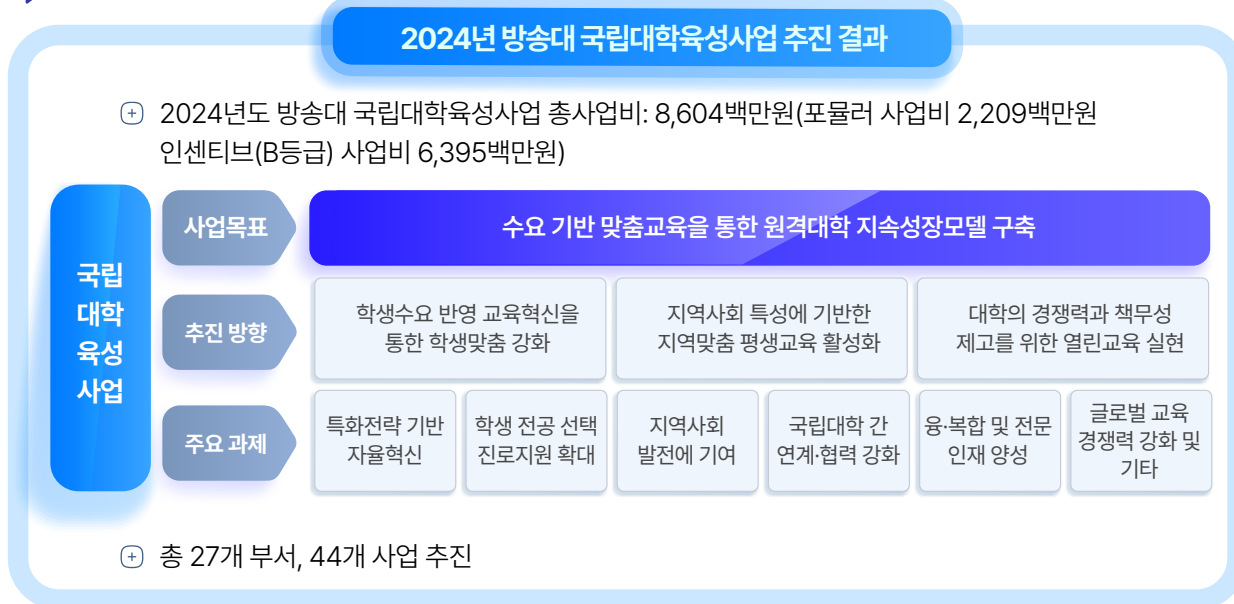
2 사업 추진 과제

주요 과제	추진과제 (예시)
특화 전략 기반 자율혁신	-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한 교육혁신 전략 보완·발전 - 지역 인재 및 취약계층 등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- 국립대학의 유·무형적 자원 및 기술 등 개방
학생 전공 선택·진로 지원 확대	- 전공자율선택제 등을 통한 학생의 전공 선택권 확대 - 경직적인 학과·전공 운영 개선, 학생의 수요 및 진로를 반영한 혁신적인 학사 구조 개편, 교육과정 개발·운영 - 기초학문 및 교양교육 활성화 등 다양한 교육 과정 개설

주요 과제	추진과제 (예시)
대학 간 연계·협력 강화	- 공동교육혁신센터 운영 및 공유 플랫폼 구축·운영 - 대학 간 교육과정 공유, 프로그램 공동 개발·운영 - 자율적인 대학 간 연합·통합 여건 조성
특화분야 연구경쟁력 강화	- 기초·보호학문 육성 및 국가적 특화 학문분야 지원 확대 - 대학원 연구 기반 강화 및 대학부설연구소 경쟁력 제고
융·복합 및 전문 인재양성	- 융·복합 인재 양성을 위해 선도적으로 학사구조를 혁신 -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및 여건 구축
글로벌 교육경쟁력 강화	- 해외 대학과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-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역 내 취업·정주 연계



3 방송대 국립대학육성사업 추진에의 시사점



○ **현재 2025년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방송대 사업계획 수립 중. 이에 일반재정지원 사업으로서의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사업계획 수립 필요**

- 우리 대학의 자체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방송대 인재양성 및 교육혁신을 위한 종합적 사업 계획을 수립·추진함으로써 대학 재정 지원 및 사업 수행 결과의 실제적 효과 발생 추구

○ **교육혁신 성과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방송대 특화 교육혁신의 방향과 사업 추구**

- 교육혁신 성과평가는 대학별 여건에 맞게 인재양성체계를 혁신하는 성과와 전략을 평가. 이에 방송대의 특성에 부합하게 교육혁신 및 인재양성의 목표를 설정하고, 이에 기반하여 방송대 교육운영체계, 교육과정, 학사제도, 학생지원체계 등에서의 혁신 방안을 수립하고 제시

<대학유형별 중점 평가내용>

대학 유형	중점 평가내용
거점대(9교), 국가중심대(13교)	- ‘학생 모집-재학’ 쉼 단계 및 제도 기반 구축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
특수목적대(4교)	- 특수목적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, 재학단계 및 제도 기반 구축 노력을 중심으로 평가 ※ 목포해양대, 한국방송통신대, 한국체육대, 한국해양대
교원양성대(11교)	- 교원양성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, 학령인구 감소,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등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학 개편 및 교원양성과정 개선 등 다양한 대학 혁신 노력을 포함하여 평가

○ 사업 성과지표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환류할 수 있는 방송대 성과관리체계 가동

- 사업계획 수립, 사업 추진 및 이행, 추진 결과 및 성과 파악 등 사업 추진 단계에 따른 사업 수행의 관리 및 모니터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, 대학 내 사업성과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고, 관련 정보를 기구축된 대학의 성과관리시스템(<https://pms.knou.ac.kr/>)에 주기적으로 업로드하여 적극적 관리, 활용

*<자료출처> 교육부(2025. 3.). 2025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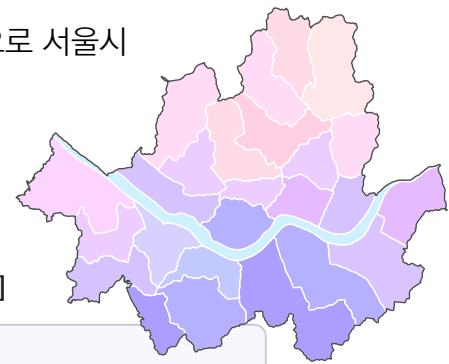


서울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(RISE) 사업

★ 2025년 각 시도는 지역 발전전략과 대학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-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구하는 「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(RISE)」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. 이에 따라 서울 시도 서울시 라이즈 계획을 수립하고 '서울형 라이즈사업'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('25.3.7.). 이번 호에서는 **서울시 라이즈사업의 주요 내용**을 살펴보고 해당 사업이 우리 대학에 시사하는 바를 탐색해 봅니다.

1 사업 개요

- (사업목적) 교육부와 서울시 경제산업 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대학지원으로 서울시와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여 대학과 함께 서울의 미래 혁신 성장
- (사업기간) 총 5년 [기본 3년('25.5~'28.2) + 연장 2년('28.3~'30.2)]
*(1차년도 사업기간) '25년 5월~ '26년 2월(10개월)



[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(RISE) 사업 추진 체계도]

프로젝트	세부 사업	성과목표
비전 	대학과 함께하는 「글로벌 미래혁신 성장도시 서울」	
1 글로벌 대학 경쟁력 강화	1 글로벌 산학협력 선도 2 첨단·미래산업 외국인 인재 유치 3 미래인재 글로벌 역량 강화	글로벌 산학협력 선도 10개 대학 육성 • 본 글로벌 창업기업 407H • 해외 인재유치 500명 • 글로벌 역량 강화 500명
2 서울전략 산업기반 강화	4 산학협력 생태계 활성화 5 AI·BIO 클러스터 혁신생태계 확산 6 창조산업 인재 양성	산학협력 생태계 활성화 22개 대학 육성 • 산학협력 인재 1,300명 • 창조산업 인재 500명
3 지역사회 동반성장	7 지역 현안 문제 해결 8 서울-지방 공유·협력 활성화 9 서울 미래기움 교육지원 생태계 구축	지역 현안 문제 해결 100건 • 서울-지방연계 인재 400명 • 나눔 프로그램 개발 5007H
4 평생·직업교육 강화	10 서울 평생교육 고도화 11 고숙련 전문기술인력양성	직업·평생교육 등 시민 15,000명 참여 • 고숙련 전문인력 800명
5 대학창업 육성	12 서울캠퍼스타운	대학창업 연 1,000팀 육성

- (사업예산) '25년 총 565억원
- (지원규모) 대학별 60억원 내외(대학 단위과제 신청 개수 제한 없음)
- (주관대학 자격) 기관평가인증을 받은 학교 및 재정진단 결과 재정건전대학에 해당하는 학교(서울시 소재 대학 본교 및 캠퍼스)
 - 기타 참여기관(참여대학, 참여기업, 협업대학, 협업기관 등)의 사업참여는 주관대학과의 컨소시엄 형태로만 참여 가능

2

사업 내용

1 글로벌 대학 경쟁력 강화

- (글로벌 산학협력 선도_서울시 시그니처 과제) 글로벌 산학협력의 실질적 성과 창출이 가능한 대학 육성을 위해 산학 공동연구, 대학 창업기업의 글로벌 협력, 진출 분야 집중 지원(5개 대학 또는 컨소시엄, 대학별 연 최대 14억)
- (첨단·미래산업 외국인 인재 유치_서울시 시그니처 과제) 산학협력 취업프로그램 활용, 시 첨단 산업 분야 기업 인재 공급, 서울시 자원 활용 외국 인재 취창업, 정주 지원 등을 통해 첨단산업 인재 유치 대학 육성(5개) 및 첨단산업 인재 유치(500명)(5개 대학 및 컨소시엄, 대학별 연 최대 10억)
- (미래인재 글로벌 역량 강화) 국내·외 대학 간 협력 교류 및 공동교육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미래 인재 양성. 대학, 지자체, 출연연 등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의 역량을 결집하여 시너지 창출(4개 대학 및 컨소시엄, 대학별 연 최대 7억)

2 서울 전략산업 기반 강화

- (산학협력 생태계 활성화) 대학별 산학협력(LINC 등)에 서울시 경제, 산업 전략 등과 연계하여 미래 산업 수요에 기반한 현장맞춤형 인재 육성(11개 대학, 대학별 연 최대 15억)
- (AI·BIO 클러스터 혁신생태계 확산) AI 및 바이오 산업생태계 기술력 향상에 특화된 대학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가치 창출 및 생태계 확산 선도(2개 컨소시엄, 컨소시엄별 연 최대 26억)
- (창조산업 인재 양성) 확장현실, 영상, 1인 미디어, 웹툰 및 애니메이션, 게임, 음악, 공연 등 창조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인재양성 및 창조산업 특화 대학 육성(5개 대학 및 컨소시엄, 대학별 연 최대 4억)

3 지역사회 동반성장

- (지역 현안 문제 해결) 대학, 지자체, 산업체가 협력하여 지역사회 실정을 반영한 지역문제 발견·해결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문제의 솔루션을 구현하는 플랫폼 구축(15개 컨소시엄, 컨소시엄별 연 최대 3억)

- (서울-지방 공유·협력 활성화) 전국 대학 간 협업을 통한 연구 역량 강화 및 교육 자원의 상호 공유, 지역 내 전략산업과의 적극적 교류를 통한 대학 간 균형 발전 도모(3개 컨소시엄_지방대학 1교 이상 포함, 컨소시엄별 연 최대 6억)
- (서울 미래기움 교육지원 생태계 구축) 늘봄학교 전면 도입에 따라 대학 중심의 교육지원 생태계 구축. 교육청과 협력하여 늘봄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늘봄센터 구축(3개 컨소시엄, 컨소시엄별 연 최대 15억)

4 평생·직업교육 강화

- (서울 평생교육 고도화) 성인학습자의 안정적 고용시장 정착을 위한 성인학습 맞춤형 직업교과정 운영 및 대학의 우수 자원 연계·협력하여 평생교육 중심의 대학 학습 모델 구현(서울형 오픈 칼리지) 개발(10개 대학 및 컨소시엄, 대학별 연 최대 4억)
- (고속련 전문기술 인력양성) 산업 현장 전문 기술인재 양성(총 800명 이상)을 위한 전문대학별 특화 분야 설정, 개발. 산업 특성을 반영한 학사개편, 정규학위과정, 산학 연계로 인재 양성(4개 전문대학 단독 및 컨소시엄, 대학별 연 최대 8억)



3 방송대 사업 추진에의 시사점

- 향후 5년간 규모 있게 추진되는 지자체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사업으로서 서울형 RISE사업 착수
 -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%의 규모를 이양하여, '지역 정주형 인재양성, 지·산·학·연 협력시스템 구축, 대학-지역협력을 통한 지역 현안 해결, 직업·평생교육 혁신'을 위한 사업 추진. 서울형 RISE사업 내용 가운데 방송대 특징 및 강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(예. 서울-지방 공유·협력 활성화, 지역 현안 문제 해결, 서울 평생교육 고도화 등)에 관해 검토 고려

- 현재 방송대는 <서울 미래기움 교육지원 생태계 구축> 사업 공모에 한성대 주관대학의 컨소시엄 (방송대, 고려대, 한국외대, 상명대 등 5개) 참여대학으로 지원 예정(최종사업 선정 5월 중순 이후)

※ 방송대는 기관인증평가 미 실시 기관으로 단독사업 및 컨소시엄 주관대학으로서 참여 불가

- 서울시 늘봄지원 프로그램 및 관련 강사 양성 과정 개발·운영에 교육학과 등 교육대학 소속 학과 참여 계획 수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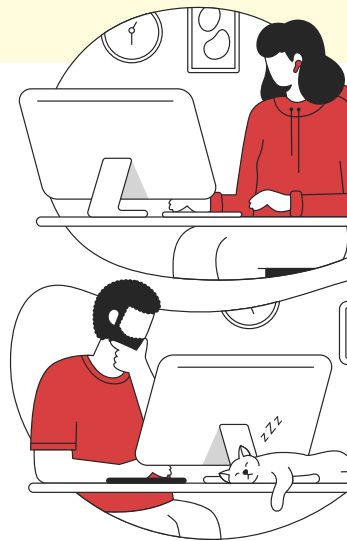
- 전국 기반 대학으로서 방송대의 RISE사업 참여에 대한 지자체 및 타 대학의 관심 정도 파악
 - 방송대는 전국 기반의 대학으로서 서울시 이외 전국 지자체의 RISE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, 전국 지자체 및 컨소시엄 구축을 희망하는 타 대학에의 관심 정도를 파악하고 연계 사업 추진의 방안 검토 고려

* <자료출처> 서울특별시(2025. 3)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(RISE), 대학과 함께하는 서울 미래 혁신 성장 기본계획/ 서울시(2025.3.7.) 서울RISE공고문 및 사업계획서.

방송대 학생 수 변화 추이에 따른 학과별 유형 분석 결과

★ 인구구조 변화, 4차 산업 혁명 등 사회 수요의 변화에 따라 대학의 학생 수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고 학사제도 개편이 이루어진 최근 5년간 방송대 학생 수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? 이번 호에서는 최근 5년간의 학과별 학생 수 변화를 학과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, 해당 변화의 결과가 방송대에 시사하는 바에 관해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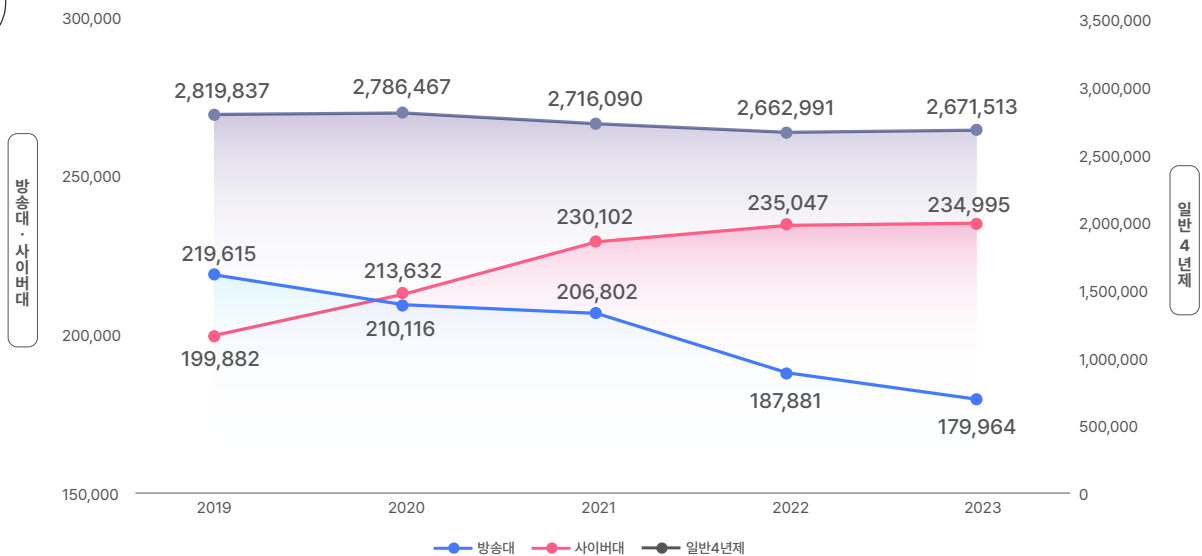
- 최근 5년(2019~2023년)간 방송대 24개 학과별 학생 수 변화추이와 학습활동 특성을 분석한 「학과별 재학생 규모 변화와 학습활동 특성 분석(2024, 과제책임자: 정연희 선임연구위원)」에서는, 방송대 학과의 학생 수 변화 유형을 4개로 분류하고 유형별 특성과 향후 과제 제시
*분석 자료: 2019~2023 교육부 교육통계데이터, 2019~2023 방송대 데이터허브 학적 데이터



1 최근 5년간 방송대 학생 수 변화 추이

- 방송대와 타 대학(일반4년제대학 및 사이버대) 학생 수 추이를 비교하면, '19년 대비 '23년 기준 일반4년제대학 학생 수는 2,819,837명에서 2,671,513명으로 5.3% 감소, 사이버대 학생 수는 199,882명에서 234,995명으로 17.6% 증가, 방송대 학생 수는 219,615명에서 179,964명으로 18.1% 감소

- 연도별 변화 정도를 볼 때,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 컸던 '21년에서 '22년 사이의 증감률이 일반4년제 대학, 사이버대, 방송대 모두에서 다른 연도에 비해 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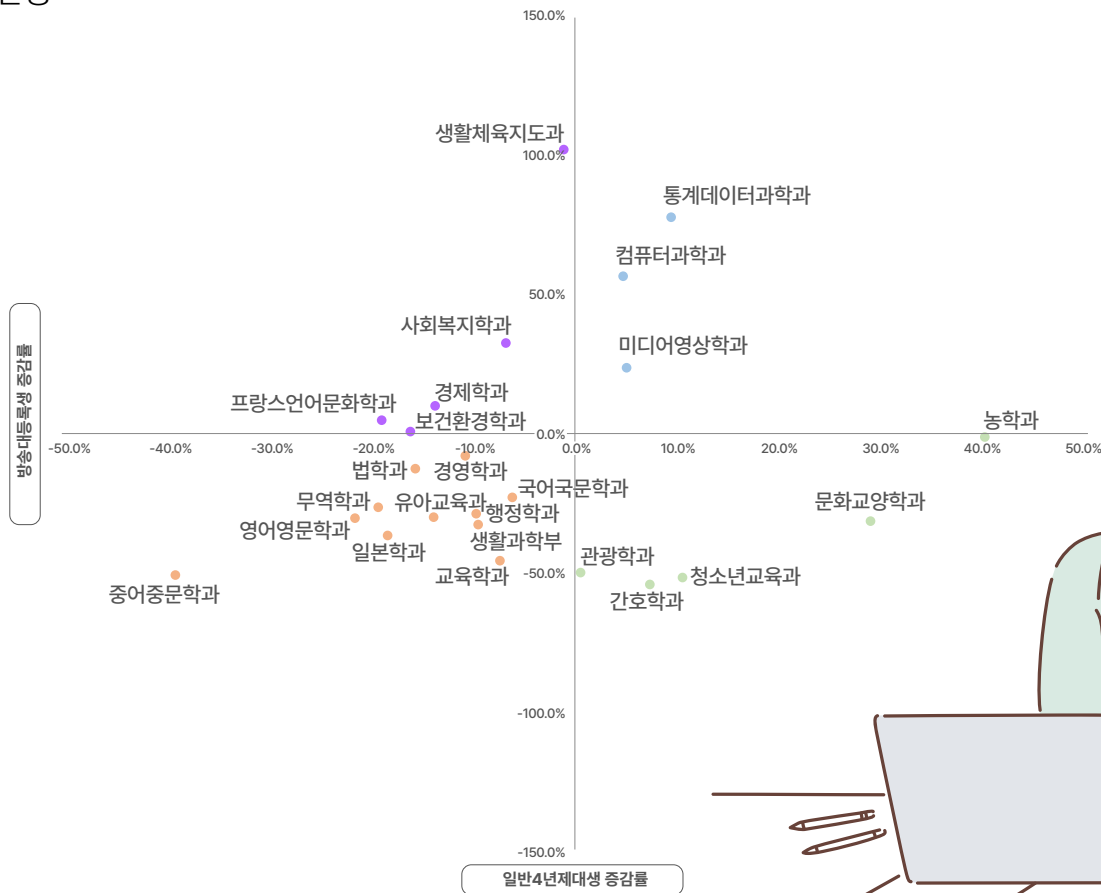


2 학과별 유형화와 유형별 분포

- 외부 수요 변화(지표: 동일계열 일반4년제대생 증감률)와 방송대 학생수 변화(지표: 방송대 학과별 등록생 증감률)를 기준으로 '19년 대비 '23년 변화 정도를 분석하여 학과별 유형화 시도
- 학과별 유형화 결과. 일반4년제대생 수도 증가하고 학과 등록생 수도 증가하는 **외증내증형**, 전자는 증가하고 후자는 감소하는 **외증내감형**, 전자는 감소하고 후자는 증가하는 **외감내증형**, 전자와 후자 모두 감소하는 **외감내감형**의 4가지 유형 도출

일반대 동일계열 증감률	방송대 학과별 등록생 증감률	학과	유형(학과 수)
+	+	미디어영상학과, 컴퓨터과학과, 통계·데이터과학과	외증내증형(3)
	-	관광학과, 농학과, 간호학과, 청소년교육과, 문화교양학과	외증내감형(5)
-	+	프랑스언어문화학과, 경제학과, 사회복지학과, 보건환경학과, 생활체육지도과	외감내증형(5)
	-	국어국문학과, 영어영문학과, 중어중문학과, 일본학과, 법학과, 행정학과, 경영학과, 무역학과, 생활과학부, 교육학과, 유아교육과	외감내감형(11)

- 학과별로 일반4년제대생 증감 및 방송대 등록생 증감의 정도에 따라 동일 유형 안 다양한 학과 분포 발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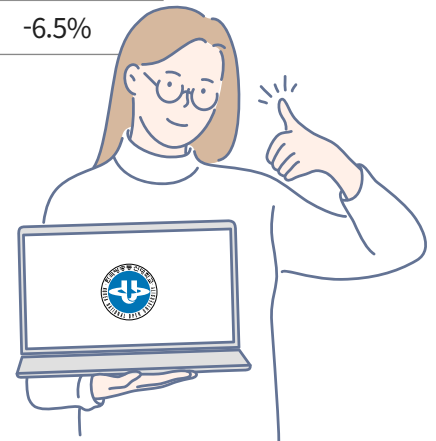


- 유형 간 상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, 동일계열 타대학 학생 증감률과 학과별 입학생, 중도탈락생, 졸업생 등 3개 지표의 증감률 추가 확인했을 때 **사이버대생 수는 4가지 유형 모두에서 증가**. 또한 방송대 내부 추이 측면에서는 **입학생 수, 중도탈락생 수, 졸업생 수의 증감 여부는 모두 등록생 수 증감 여부와 동조 발생**

구분		외증내증형	외증내감형	외감내증형	외감내감형
외부수요 증감률	일반4년제대생	6.4%	17.4%	-11.2%	-15.6%
	사이버대생	46.9%	195.5%	99.7%	19.7%
방송대 학생수 증감률	등록생	53.1%	-37.7%	29.9%	-29.6%
	입학생	31.1%	-36.8%	0.9%	-25.6%
	중도탈락생	16.4%	-38.4%	91.4%	-39.9%
	졸업생	187.8%	-17.8%	63.5%	-6.5%

3 유형별 특성에 따른 시사점 및 제언

- **외증내증형**은 4가지 유형 중 가장 바람직한 상황으로, 해당 유형의 학과들은 앞으로 도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며, 다만, 중도탈락생 증가에 대해 주의 필요
- **외증내감형**의 학과들은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외부 수요는 증가했다는 점에서 사이버대 학과 동일계열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거나, 일반4년제대가 포괄하기 어려운 원격대학 수요층을 발굴하는 등 학과별 원인 분석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 필요
- **외감내증형**은 외부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학생 수가 증가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며, 특히, 사회복지학과와 생활체육지도과의 예와 같이 학과 신설의 효과 확인. 다만, 신설학과 효과가 점차 감소한 후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위한 학과 발전 계획 필요
- **외감내감형**은 네 유형 중 가장 많은 학과가 속한 유형으로, 외부 수요 감소 상황에서 학과별 활로를 찾아야 하는 과제 발생. 전공 교육과정의 변화, 외부 수요 확대 학과와 연계 전공 설치, 학생 요구 반영의 마이크로학위 제공 등 학사제도 개편의 다양한 시도 필요
- 방송대학과의 상이한 특성을 고려할 때, 각 학과에 맞는 발전계획 수립 필요. 이를 위해 **학과별 유형화 자료는 학과 단위의 현황 파악 및 이에 기반한 전략적 대응뿐만 아니라, 대학 차원에서의 종합적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활용 가능**



* <자료 출처> 정연희, 이은경, 양유정(2024). 학과별 재학생 규모 변화와 학습활동 특성 분석.(24-05).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래원격교육연구원.